

아시아地域 大學의 새로운 傾向探索

白 賢 基

(유네스코 아시아地域 教育處 教育專門家)

◇ 필자는 梨花女大 教授와 中央教育研究
◇ 所 所長(1961~1972년)을 역임하고, 1972
◇ 년 이래 UNESCO 아시아地域 教育處에서
◇ 활동하고 있다. 이 글은 그 동안의 적적적
◇ 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아시아地域 國
◇ 家들에 있어서 大學教育의 目的 및 目標
◇ 에 관해서 깊이 있는 探索을 시도하고 있
◇ 다.……………〈編輯者 註〉◇

I. 序 言

教育이 한 國民의 發展을 全般的으로 表示해 주는 斷面인 동시에 그 발전의 모든 側面에 영향을 주는 基本要素라는 사실이 점점 더 認識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아시아地域 開發途上國에서 한층 강력히 나타나고 있다.

「發展 또는 開發(development)」이란 용어가 人力養成의 必要와 關聯되어 狹意로 定義될 때, 흔히 經濟發展과 同意語로 해석되고 있다. 그래서 國家發展의 現代的 領域에 대해서만 철저히 관심을 기울여 적절한 資本이 일정하게 供給되었을 때 人力開發과 經濟發展間의 因果關係가 어떠한가가 항상 초점이 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發展指向性은 몇 가지 問題를 야기시키게 되었다. 즉 그것은 技術系 專門家나 자격증 소지

자의 失業問題를 야기시켰고, 加速的인 發展을 위해 諸般 組織, 또는 條件整備를 꾀했음에도 불구하고 經濟發展의 鈍化現象을 초래시켰으며, 같은 社會나 國家의 集團間에도 收入이나 經濟力에 있어 심각한 격차를 노출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러서는 發展에 대한 개념과 大學教育에 대한 개념은 크게 바뀌었으며 이 發展과 大學教育間의 關係도 뚜렷이 變化되게 되었다. 즉 大學教育은 새로운 機能을 수용하게 되어 大學의 프로그램들은 社會의 다른 活動들과 더욱 긴밀하고, 더욱 相互作用的인 關係를 이루게 되었는데 「研究」와 成人을 위한 「繼續擴張教育(extension education)」이 곧 그 새로운 機能이다. 또한 大學이 이들 새로운 기능을 수용함으로써 大學教育의 目的이나 目標에도 根本的인 變化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 글은 이렇듯 변화되는 아시아地域 大學教育의 目的(goals)과 目標(objectives)를 중심으로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大學教育의 새로운 傾向을 探索코자 쓰여졌다.

II. 大學教育의 目的과 目標

大學이 抽象的인 存在가 되어서는 目的을 지니기 어려우며 오직 具體的인 人間集團을 前提로 했을 때만 目的을 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

여기에서 人間集團이란 教授하고 研究하는 教授職분 아니라 大學의 教授와 계속확장교육에서 혜택을 받는 學生과 地域社會를 말하며 이들 集團의 목적이 大學의 목적이 되어 大學教育의 方向에 영향을 주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目的은 그 實踐計劃을 수립하고 그 成果를 評價하기 위해 含蓄 具體인 目標들로 細分化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 이러한 目標設定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大學이 수행하는 중요한 機能에는 測定될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가령 어떤 形態의 變化를 규명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동시에 그러한 變化를 가장 意義 있다고 判斷한다고 해석될 수 있는 것과 같이 그 測定이 어렵다. 뿐만 아니라 教育의 質質的 結果는 단편적으로가 아니라 전체적인 相互作用關係(holistic terms)에서만 측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그러나 현행 大學教育 프로그램의 問題나 弱點을 근거로 해서 그러한 目標들의 優先順位表를 작성할 수는 있을 것이며 그 중에는 측정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具體적이지만 數量化할 수 없는 것도 있고 다분히 主觀的인 判斷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것도 있다.

1. 大學教育의 目的

우선 目的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政府와 國民이 主體가 되어 大學을 設立·維持·支援하는 것은 대학이 高級人力을 양성해 주며, 國家目的 達成을 위해 研究機能을 발휘해 주고, 그 實踐方向을 示唆해 줌으로써 國家發展에 기여하도록 하는 期待에서이다. 學生은 社會的地位와 職業에 관한 資格을 획득하는 데 관심이 있고, 教授는 專攻領域에서 自己擴張을 꾀할 뿐 아니라, 國家的 必要에 따라 學生을 教授하고 專門的 研究를 수행하는 것이 임무이다. 이 때 學生과 教授는 한결같이 學生의 個人的 發達을 추구하며 그들이 높은 道德水準을 갖고 계속적으로 社會發展 또는 個人發達을 꾀하려는 人生哲學을 갖도록 하는 데 관심을 갖는다. 그 理由는 이러한 德目들을 日常的으로 實踐함으로써 國家發展뿐 아니라 學生의 自己實現 및 大學의 存立과 活力維持에 있어서 결정적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렇듯 大學教育이 國家發展에 기여해야 한다는 傾向이 오늘날 아시아 지역의 大學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다. 그런데 이러한 運動이 두드러지게 부각된 것은 1973년초 Malaya 大學校에서 IAU(International Association of Universities) 세미나가 “아시아 국가 大學의 社會的 責任”이란 主題로 개최되었을 때이다. 나아가 1978년 第4次 MINEDASO 회의(4th Regional Conferences of Ministers of Education and Those Responsible for Economic Planning in Asia and Oceania)에서는 “教育의 役割은 각국이 당면한 특수한 社會經濟的, 文化的 및 政治的 諸條件에서 發見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 조건들이 大學의 役割을 크게 좌우하며, 한편 그 역할은 이들 諸條件의 發展의 改善에 기여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라고 제안함으로써 아시아 大學의 共通的인 새로운 大學教育의 目的을 含蓄 분명히 示唆하였다. UNESCO 19次 總會에서 확정된 UN ESCO 中期計劃에서도 「發展」이란 本質的으로 內在的(endogenous) 性質을 가진 全般的, 多次元的, 또는 多樣한 過程이면서 그 社會의 독특한 價値와 관련되어 있고, 그 社會의 主管者(agents)라 하였고, 동시에 受惠者인 個人과 集團에 대하여는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參與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解釋하고 있다.

결국 오늘날 아시아 狀況에서 大學은 「研究」와 「教授」 및 「繼續擴張教育」이라는 세 가지 活動을 통해 國家發展에 공헌한다는 重要的 目的을 추구하고 있는 셈이다. 國家的 觀點에서 볼 때 大學은 첫째로 學生에게 필요한 技能이나 知識을 갖추게 하고, 또 그들이 自己를 實現하게 하고, 國家와 地域社會 건설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價値觀과 感受性을 기르게 함으로써만 그 기여가 가능하며, 둘째로 大學 自體가 그의 適切性과 秀越性을 위해 적극 노력함으로써만 효과 있게 그 기능을 發揮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大學教育의 諸目標

한편 大學教育의 目標에 관해 살펴보면 그것은 前記 IAU세미나에서 표방한 「大學의 社會的 責任」이란 小主題들에서 고찰될 수 있다. 즉 ①

大學과 母國語正體感(national language identity), ② 大學 卒業者와 勞動市場, ③ 社會에서의 大學의 革新的 役割 등의 小主題들로부터 찾을 수 있다.

또 第4次 MINEDASO 會議를 위한 高等教育 評價(assessment)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지적된 것은 持續的인 革新이 아시아地域 大學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었다. 즉 科學技術教育의 改善을 위해 더 많은 資源이 投入되고 있으며, 應用研究에 關係 더욱 큰 비중이 주어지고, 地域사회와 학생의 學習應用에 도움을 주는 繼續擴張教育 프로그램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政府의 開發機關과 産業部門間의 유대도 強化되고 있고, 高等學校 이후의 教育기관으로서 開放大學 형태의 制度가 設립되고 있으며, 끝으로 과거에 등한시 되어 오던 內在的 發展(endogenous development)을 꾀하기 위해 高等教育의 새로운 機能과 組織이 形成되어 가고 있다는 것 등에서 大學教育의 새로운 目標들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졸업자의 失業狀態라든가 학생 1人當 教育費가 과다한 현실에서 高等教育의 質과 適切性, 또는 그 社會的 公認도 등에 關係한 再評價도 필요하다는 指摘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오늘날 아시아地域에서는 세 가지 주요한 教育改革 動向이 일어나고 있다. 그 하나는 社會的·人間的 同等性(equity)이란 觀點에서 뿐 아니라 都·農間의 격차를 減少시킨다는 觀點에서 大學이 그 對象領域을 넓히고 있다는 것이며, 둘째는 大學이 또 地域社會 發展을 위해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믿고 노력하는 動向이고, 셋째는 大學과 産業界 사이에 失業問題 解決을 위해 긴밀히 노력하고 있다는 傾向이다. 이들 傾向에서 볼 때 傳統的인 大學教育은 그 社會的 役割을 再檢討해야 하며, 특히 私立大學의 存立과 學生 1人當 과다한 教育費 등에 關係 그러한 再檢討가 요청된다. 따라서 새로운 教育方法과 새로운 高等教育論에 關係한 研究의 革新이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새로운 發展 개념과 그 발전에서의 教育의 役割 개념이 教育의 效率性을 測定하는 데 있어서, 또는 關係된 評價基準이나 評價道具 속에서 反映되지 않는다면, 그 教育改

革의 目標은 안정될 수 없을 것이다. 第4次 MINEDASO 회의에서는 教授-學習過程에서 이와 關係된 몇 가지 점에 대해 言及한 바 있다. 가령 「教育의 效率性」에서 볼 때 오늘날 教育機能이 광범위해지고 있기 때문에 效率性 개념이 擴大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研究에 關係해서도 教育의 革新과 經濟·社會的 및 文化的 發展은 적절한 研究에 힘입어야 한다는 점을 力說하였는데 大學의 研究는 그 동안 國家發展 問題보다 學問的 課題에 치우쳐 있었음이 지적되었고 또 開發途上國들이 환경이나 必要가 그들과 전혀 다른 先進國들의 研究理論과 研究結果를 그대로 수용한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그래서 教育研究는 教育改革에서 당면하는 主要問題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한편 「評價」의 개념도 總括評價의 次元을 넘어 한층 높은 質的 次元에서 教育改革의 結果를 究명하도록 요청되고 있으므로 量的, 經濟的 次元뿐 아니라 教育改革의 社會的, 文化的 次元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評價技術의 개발이 절실하다는 점이 요구되고 있다.

Ⅲ. 變化的 動因으로서의 繼續擴張教育

大學은 그 세 가지 기능 중 研究에 우선 순위를 두고, 이 研究機能에서 教授와 계속확장교육의 機能이 인도되는 統合機能體制로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대학이 社會的 役割과 責任을 감당하고 國家發展에 기여할 수 있는 方向에로의 改革을 꾀하게 되면서 그 초점이 繼續擴張教育에 놓여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 계속확장교육은 한편에서는 教授內容과 方法, 教授媒體를 발달시켰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研究樣式과 새로운 研究問題를 제시하게 되었다. 依り하여 大學의 活動은 마침내 획기적 變化를 가져왔으며 그것은 과거와 같이 研究室이나 講義室에서 的 活動보다는 現場學習活動을 강조하게 되었다. 또 開放大學이나 通信大學과 같은 教育體制가 발전하였고 社會奉仕나 職業實習 혹은 現場研究(participatory research)와 같은 새로운 教育組織을 出現시켜 계속확장교육의 기능을 한층 발전하게 하였는데, 이는 계속확장교육 때문에 발달된 教授方法이나 教育資料 또는 教育技術에

힘 입은 바 있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繼續擴張教育 프로그램이 발달함으로써 大學教育이 變質되게 되었으며 새로운 양식과 精神으로 그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면서 大學과 國家發展을 연결시키고, 대학이 落後된 社會를 위해 적극 개입하게 되었다. 나아가 大學의 組織과 커리큘럼이 教授-學習過程과 教育技術에 根本的인 意義를 두면서 變化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繼續擴張教育이 처음에 어떻게 大學의 기능으로 받아들여졌는지를 具體的으로 살펴 보면 한층 도움이 될 것이다. 傳統的으로 大學教育은 教授와 研究의 기능만 수행해 오다가 繼續擴張教育이라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게 되었다고 했거니와, 이 새로운 기능은 오랫동안 주로 農業 및 女性의 家庭經濟學에서만 다루어져 왔다. 실제 계속확장교육 기능은 비록 學生身分으로 大學에 登錄을 하지 않는 成人集團을 對象으로 할지라도 이들 성인집단의 「教育」에 관여하기 때문에 教授機能에 포함시켜 생각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繼續擴張教育이 대학의 概念뿐 아니라 그 組織과 機能 및 對象에 대해 根本的인 變化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대학은 더 이상 知識生産이나 知識訓練만을 위한 機構로 存在할 수 없고 外部의 중요한 社會奉仕나 國家奉仕를 감당하는 機關으로 수용되었다. 한편 이러한 大學의 외곽적 기능은 大學教授와 生産活動에 從事하는 사람들 사이에 相互學習-教授하는 狀況을 형성하게 유도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改革이 처음에는 傳統的인 大學教育의 개념이나 原理에 어긋난다는 理由로 상당한 抵抗을 받았다. 그래서 初期에는 大學과 別途體制로 그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설치·운영되다가 그 存立의 必要性이 인정된 후 비로소 大學水準의 機關으로 統合되었다. 그리하여 大學이 「眞理에 관한 研究」라는 그 本來의 임무 때문에 社會의 절박한 現實的 必要에 奉仕하는 일에 반대한다는 主張은 확실히 잘못된 태도임이 명백해졌다.

Ⅳ. 몇 가지 革新事例

위와 같은 大學의 革新的 事例는 각국에서 찾

아 볼 수 있으나 代表的인 몇 가지를 더 자세히 概觀코자 한다. 첫째로 아시아地域의 共通的인 事例를 살펴보면, 그것은 오늘날 이 地域의 大學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社會 특히 落後된 農촌의 貧困層과 긴밀히 相互作用하고 있는 예이다. 몇몇 國家에서는 學生뿐 아니라 教授까지 一定期間 農村에 배치하여 教師로서 또는 開發活動의 參加者로서 奉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初期段階이기 때문에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問題를 안고 있지만 利點도 많다. 그 利點으로는 낙후되고 失調된 사람에게 教育의 機會를 줄 뿐 아니라 어려운 狀況에서 생활하는 경험을 쌓게 하며, 當面問題의 解決을 위해 그들 각자의 專門的 知識을 活用하게 하고, 또 集團作業이나 計劃의 設計와 수립, 과제에 관한 의견 교환, 계획의 실천 및 評價 등의 경험을 쌓게 했으며 나아가 個人이 자기의 혼란 不足을 깨닫고 集團參與 없는 革新사업의 不適切性을 깨닫게 해 준다는 등이 지적되고 있다. 한편 그러한 接近이 지닌 問題點으로는 文化的 충격을 줄 경향이 있는가 하면, 장래의 위대한 數學者 또는 科學者에게 時間浪費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都市에서 성장한 부유층 學生들로부터 抵抗을 받게 된다는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革新活動은 그 운동에 참여하여 奉仕하는 學生뿐 아니라 그 活動에서 惠澤을 받는 사람들도 공히 利益을 얻는다는 점이 力說되고 있다.

둘째의 革新事例는 學際的(interdisciplinary)인 특성을 띠었으며, 學生이 地域社會開發을 위해 指教的으로 努力하도록 하는 事例로서 그 代表的인 것은 필리핀大學의 「地域社會 綜合健康 프로그램(CCHP: Comprehensive Community Health Programme)」을 들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事例는 學生의 奉仕活動을 水準 높은 專門課業으로 計劃하며, 地域社會가 學生과 밀접히 相互作用하게 되고, 農村地域奉仕의 경험과 成果가 계속해서 大學의 커리큘럼에 反映되어 꾸준히 프로그램 개선을 꾀하게 하며, 아울러 學生의 學習水準도 向上시킨다는 특색이 있다. 全體 프로그램은 일종의 實驗의 형태로 設計되었으며, 피드백 體制를 통해 活動指針이나 深層의 탐색을 유도시키려 하고 있고, 프로그램 要素들

과 그 요소간의 相互關聯性이 持續적으로 適應되도록 조처되고 있다. 1965년 發足된 CCHP는 醫大가 主軸이 되어 保健學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그때까지 醫大의 教授-學習 活動은 주로 캠퍼스나 病院에서만 이루어져 70~90%의 人口가 살고 있는 농촌지역의 현실적 문제를 알지 못하는 醫大卒業者를 배출하고 있는 현실적 教育을 시정하려는 意圖에서 出現된 프로그램이다.

처음에는 農大와 협력하여 Laguna 州의 한 지역에서 이 CCHP가 시작되었으나 곧 이어 齒科, 看護學, 藥學, 公衆保健學, 職業 治療와 物理治療, 營養學 수의학 등의 學科가 동참했고 그밖에 社會事業, 地域開發, 또는 人口關係 學科도 동조하였다. 이러한 關聯學科들은 CCHP를 위해 常勤教授를 파견하여 협조하고 있는데 이 常勤教授는 다시 農村地域別로 割當되어 協力大學에서 보낸 학생에게 專攻訓練을 시킴과 아울러 研究와 계속확장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研究는 實踐의 形態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색적이다. 實習學生에 대해서는 現場定置前 그들의 能力을 分析하고 大學當局과 그들에게 부과할 課程에 關係 상의하여 이수시키면서 이 프로그램에 相關된 大學의 全體 커리큘럼을 다양 수정하기도 한다. 그밖에 中核 커리큘럼에 相關된 要素를 찾을 경우에는 學習事項이 학생으로 하여금 農村 일을 더욱 專門의이고 有能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하고, 國民의 必要에 對해 더욱 能動的으로 조처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로, 그 主要 선택기준을 삼고 있다.

이러한 필리핀 醫大들이 수행하고 있는 地域 社會 봉사기능은 우리 나라 醫大의 醫學教育 方向에 좋은 示唆를 던져 주고 있다고 보아진다. 우리 나라에서 배출되는 年間 約 5,000명의 醫大 卒業者가 一定期間 농촌지역에 배치되어 농촌의 보건위생을 개선하는 일뿐 아니라 새마을 운동과 같은 사업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革新策을 수립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必要性을 느끼게 한다.

세째, 改革事例는 소위 開發大學(development university)을 설립하여 綜合的인 社會經濟的 發展의 必要에 奉仕하는 것을 그 活動原理로 삼고 있는 예에서 볼 수 있다. 그 具體的인 事例는

이란의 Bu-Ali Sina 大學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 大學은 원래 이 나라의 農村계층 또는 未開層의 統合的인 社會經濟的 및 文化的 發展을 위해 필요 한 人的 資源과 知識을 보급하는 데 기여코자 설립되었으며 따라서 그 教育 및 研究는 學究的인 이기보다는 機能的이고, 特定學問 指向的인 이기보다는 多學問的이고 問題 指向的인 이다. 그 教育은 科學과 技術의 應用을 강조하여 卒業者는 각자가 배운 知識을 問題解決이나 革新目的에 應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 이 大學은 農科, 教育, 環境 및 保健 등 4개의 單科大學群(clusters)으로 구성되었으며 各 單科大學마다 1개 主要 問題 領域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그 한 領域은 다시 몇 개 下位研究領域으로 细分되어 있다. 이러한 改革傾向은 다른 몇 개 大學校에서 開發大學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形式으로 學位課程을 설치 하거나 開發事業을 수행함으로써 擴散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다양한 形態의 問題解決 指向的인 且 學際 指向的인 開發大學이 出現할 것으로 전망된다.

끝으로 한 가지 大學教育 改革事例는 한층 極端的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그것은 현재 印度의 名聲 있는 自治 기구인 「國立經營研究所」에서 그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여기에는 教授技能을 비롯해서 研究, 繼續擴張教育 및 諮問 프로그램이 있으며 하나의 實驗機關으로서 그것이 수행한 實驗結果를 토대로 마침내 農村大學(Rural University)이라 부르는 高等教育機關을 발달하게 했다. 이 農村大學은 教育에 관심이 있는 少數에 의해 發起되었는데 그들은 學習過程이 곧 社會開發의 기초라 보고 이 학습과정을 통해 農村開發과 農村教育의 統合을 실현코자 1975년 한 낙후된 農촌에서 시작했다. 그들은 開發活動 이란 모름지기 所得의 手段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으며 사람은 行動과 經驗을 통해 學習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活動 그 自體보다 人間開發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 農村大學의 基本假定은 印度의 農촌개발은 단순히 또 직접적으로 農촌개발 그 自體만을 향상시키는 目標指向的인 計劃을 통해서가 아니라 人間開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데 있다. 그래서 學習을 위한 진정한 欲求와 더불어 나타나는 個人的 自

律的이고 能動的인 參與가 가장 基本的 要件이라 보았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사람은 自助하는 법과 더불어 남을 돕고 自己 및 他地域社會를 돕는 방법을 배우는 데 力點을 두었고 自己信賴와 남과의 相互關聯性이란 두 가지를 農村大學의 基本理念으로 표방했다. 農村大學은 또 學習의 機會가 있을 수 있거나 그런 기회를 형성해야 할 狀況에서는 어디서나 學習空間의 設定者로서, 助長者, 提供者, 또는 組織者로서의 役割을 하며, 따라서 그 學習空間으로서의 農村의 오두막에서부터 우물가, 타각마당, 찻집, 학교 교실, 들관, 관청 사무실, 公會堂, 길가 등 모든 장소가 이용되었다.

이 農村大學의 教育對象은 모든 社會層, 또는 職業層이 다 될 수 있으나 특히 社會經濟적으로 落後된 계층의 사람을 주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學習을 통해 社會經濟적으로 속박된 狀況에서 스스로를 구출하도록 하는 데 重點을 둔다. 그러므로 大學의 會員은 農夫를 비롯해서 勞動者, 技能工, 公務員, 教師, 銀行員, 事業家, 技術者, 기타 希望者면 누구나 될 수 있으나 이들 會員間에는 形式的인 一體感 같은 것은 없고 다만 學習空間을 共同利用한다는 데서 오는 연계감 같은 것만이 형성될 뿐이다. 農村大學에 참가하는 形式은 均一하지 않고, 특정 集團에만 한정되어 수행되는 經驗이 있고, 參與의 水準도 全體的인 것으로부터 部分的인 것에까지 걸쳐 있고, 學習이나 實踐水準도 아주 積極的인 것부터 消極的이고 느린 것까지 있다. 이 大學의 初期會員들은 소박한 實驗者로서 여러 가지 試行錯誤를 통해 參與의 實際나 自己表現 또는 自己開發 등과 같은 能力은 強要나 權威 등의 形式的 通路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理念에 가장 적절한 國民들에게서 體系적으로 형성된다는 敎訓을 배웠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意圖하고 表現한 것과 그 實踐間에는 媒介變因들의 作用으로 인해 乖離현상이 생긴다는 敎訓도 배우게 되었다.

위에서 제시된 高等教育의 革新事例는 주로 大學教育에 직접 영향을 주는 事例에만 限定되어 있으나 高等學校 卒業者를 위한 새로운 形態의 教育機關(primary education institu-

tions)도 아시아에서 發達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 새로운 기관은 高等學校 卒業者의 失業率을 줄이기 위해 地域적으로 가능한 職種에 대해 訓練시키거나 小規模의 自立事業을 할 수 있는 事業家로서의 훈련을 시키는 기관으로 등장하고 있다. 近年에 成功的으로 發展하고 있는 몇 가지 形態의 開放大學에서 그 典型的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들 중 어떤 것은 教師職이나 農業職과 같이 비교적 낮은 水準의 教育的 必要를 充足시키기 위해 운영되고 있지만, 기관에 따라서는 正規大學의 學位課程처럼 교육시키는 곳도 있다. 비록 처음에는 낙후된 個人이나 集團의 必要를 充足시키기 위해 설치되었지만 이들 開放大學이 이 특수한 必要充만에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既存 特惠集團과 落後集團 사이의 教育機會의 격차는 漸次 深化될 위험도 안고 있다.

이상에서 개관한 바와 같이 教育目的이란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아시아 大學들은 社會와 有機的인 관계를 형성해 가고 있으며 社會의 落後된 地域이 自主적으로 그 發展을 위해 노력하게 하는 새로운 對策이나 프로그램을 開發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過程에서야말로 大學內 또는 現場에서의 學習內容이나 方法이 社會全般的 個人的 또는 社會的 必要를 充足시키는 데 있어 漸次 적절할 수 있을 것이다. 各국 政府와 政治家는 大學의 內在的 發展을 급속히 成長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러한 傾向을 적극 支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V. UNESCO의 活動

오늘날 아시아의 大學教育에서 새로운 教育方法과 技術, 또는 教育資料의 발전을 助長하는 敎授-學習過程에 관해 지금까지 考察하였거니와, 이 結果 또는 그 傾向에 더해 UNESCO 아시아 太平洋地域 教育處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活動이 있다. UNESCO는 그 동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泰國 등 4개국으로 조직된 이른바 RIHED(Regional Institute of Higher Education and Development)와 협력하여 高等教育과 國家發展과의 관계에 관한 國家間的 情

報 또는 經驗의 交流를 支援해 왔다. RIHED 에서는 1978년 12월 아시아 國家들의 醫大教授와 政府관료가 참석하여 “高等教育과 基礎保健의 必要(Higher Education and Basic Health Needs)” 라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서로의 經驗을 교환하여 토의하였는데, 여기에서는 地域社會 醫學教育에 관련된 여러 가지 事例가 제시되었다. 가령 인도네시아의 例는 Airlangga 大學이 主導하여 60개 마을을 대상으로 教育戰略과 保健醫療(health care) 事業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事業은 教育和 奉仕라는 두 가지 目的에서 醫大生에게 統合的 形式으로 現代 醫學의 기초과학을 學習하게 하고 現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促하고 있다. 한편 泰國의 事例는 醫大生은 在學중 農村 마을에서 現場 學習 또는 研究를 하게 되어 있으며 이 事業에서 확인된 農村地域의 保健必要를 근거로 해서 醫學教育 커리큘럼을 계속 調整하도록 되어 있다. UNESCO는 이러한 經驗交流를 통해 國家間의 協助와 共同發展을 促하는 일에 調整者 役割을 하고 있다.

前記한 第4次 MINEDASO 회의에서도 高等教育의 改革을 위해 國家間의 協助가 필요하다는 점에 同意하고 UNESCO 事務總長으로 하여금 國家發展과 연결되는 教育改革을 助長하기 위한 方案探索會議를 개최해 주도록 요청했다. 이 요청에 따라 UNESCO 아시아 太平洋地域 事務處는 그 동안 수차례 걸쳐 그와 같은 會議를 召集하여

集하여 그러한 改革事業을 助長해 왔다.

여러 가지 改革을 실현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새로운 入學節次와 새로운 評價基準 또는 評價節次가 實情에 適合되도록 要求되고 있는 實情이다. 그것은 失業問題의 解決策을 찾기 위해서도 그러하거나와 集團間의 機會均等を 증진시키기 위해, 또는 地域社會와 產業界間의 유대강화를 위해 그러하며, 나아가 새로운 高等教育學(pedagogy of higher education)의 出現을 助長하기 위해서도 그러하다. 比록 뚜렷이 判明되지 않은 現存 改革事項에서도 大學間 또는 國家間 基準上의 不一致感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을 목 격할 때도 그러한 조치가 要求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狀況을 減少 또는 解消하기 위해서도 UNESCO는 이미 아시아地域 高等教育에 관한 연구와 資格制度 및 學位制度 등을 검토하는 會議를 열었으며 高等教育의 目的과 理論에 관한 심포지움도 개최해 왔다. 이들 會合에 한국대표는 계속 참가하여 크게 공헌하고 있거나와 앞으로는 韓國大學教育協議會와의 긴밀한 협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UNESCO는 앞으로도 다른 國際機構 또는 地域機構들과의 共同努力으로 會員國間의 技術的인 협조를 조장하고 긴밀한 協力體制를 구축함으로써 그러한 紐帶強化體制가 고등교육 分野에 까지 擴大되어 相互 利益을 얻도록 하기 위해 持續的이며 集中的인 活動을 수행하려고 다짐하고 있다. *